

2018년 10월 18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FOMC 의사록 공개 후 변동성 확대 미 연준, “경기는 긍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예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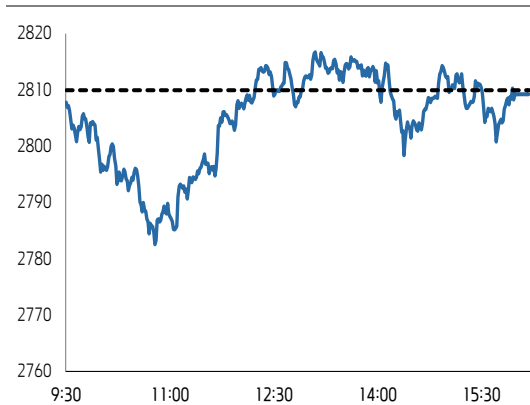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부진한 주택지표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IBM(-7.63%) 하락도 지수 하락 요인. 다만,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금융주가 반등에 성공하자 낙폭 축소. 한편, FOMC 의사록 공개 직후 일부 매파적인 내용에 의해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며 재차 반등하는 등 변동성 확대 (다우 -0.36%, 나스닥 -0.04%, S&P500 -0.03%, 러셀 2000 -0.45%)

미 증시는 ①기업 실적 발표 ②주택지표 부진 ③국제유가 급락 ④FOMC 의사록 공개에 의해 변화. 전일 미 증시 마감 후 IBM 은 예상 보다 부진한 매출 발표. IBM 은 달러화 강세로 매출이 둔화되었다고 발표.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이슈로 달러 강세(28%)가 첫 번째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음. 넷플릭스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급등 출발 했으나 향후 실적 개선이 지속될지 의문이 제기된 이후 매물 출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으며, FANG 기업들도 매물 출회되며 장중 한때 하락 전환. 한편, 국제유가가 급락한 점도 부담. 국제유가는 미국과 사우디의 분쟁이 해소되는 과정이 이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자 70 달러 하회.

연준은 FOMC 의사록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 의지를 표명. 내용을 살펴보면 ①강달러가 저성장, 인플레이 유발 위험 요인 중 하나. ②무역분쟁이 성장과 인플레이 불확실성 요인 ③경기는 긍정적이고, 인플레이는 예상수준 ④중립 금리는 변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점이 특징. 관련 내용이 발표된 직후 중립 금리 초과하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식시장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실망감과 일부 매파적인 내용이 의한 것으로 추정. 또한 달러화와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폭 확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주식시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한편, 12 월 금리인상 확률은 의사록 공개 직후 상승(79.7%→83.0%)한 반면 2019년 3월 확률은 하락(50.2%→49.8%)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67.51	+1.04	홍콩항셱	25,462.26	휴장
KOSDAQ	739.15	+1.05	영국	7,054.60	-0.07
DOW	25,706.68	-0.36	독일	11,715.03	-0.52
NASDAQ	7,642.70	-0.04	프랑스	5,144.95	-0.54
S&P 500	2,809.21	-0.03	스페인	8,997.20	-0.85
상하이종합	2,561.61	+0.60	그리스	637.08	-1.18
일본	22,841.12	+1.29	이탈리아	19,454.99	-1.3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FANG 기업들 장중 한때 하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이어짐

넷플릭스(+5.28%)는 양호한 실적과 가입자수 증가에 기대 상승 했다. 다만, 장중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알파벳(-0.48%), 페이스북(+0.40%), 아마존(+0.65%), 애플(-0.43%) 등 FAANG 기업들이 장중 한 때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US방코프(+3.79%)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국제금리 또한 상승하자 JP모건(+1.11%), BOA(+1.30%) 등 여타 금융주도 동반 상승 했다. ASML(+1.81%)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IBM(-7.63%)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하락했다. 홈디포(-4.34%)는 CS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 한 여파로 하락 했다. 레나르(-2.31%), KB홈(-2.84%), 로이어(-3.34%)도 주택착공건수 둔화 소식까지 겹치며 동반 하락 했다. 코노코필립스(-1.79%), EOG리소스(-1.73%) 등 세일오일업체들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74%	대형 가치주 ETF	+0.11%
에너지섹터 ETF	-1.43%	중형 가치주 ETF	-0.25%
소매업체 ETF	-1.36%	소형 가치주 ETF	-0.29%
금융섹터 ETF	+1.01%	배당주 ETF	-0.31%
기술섹터 ETF	-0.46%	변동성 ETF	+1.53%
소셜 미디어업체 ETF	-1.71%	대형 성장주 ETF	-0.11%
인터넷업체 ETF	+0.34%	중형 성장주 ETF	-0.46%
리츠업체 ETF	-0.28%	소형 성장주 ETF	-0.38%
주택건설업체 ETF	-1.91%	신흥국 고배당 ETF	-0.99%
바이오섹터 ETF	-0.0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0%
헬스케어 ETF	+0.53%	하이일드 ETF	-0.11%
곡물 ETF	-0.06%	물가연동채 ETF	-0.24%
반도체 ETF	-0.49%	Long/short ETF	-0.8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37.01	-0.70%	-3.42%	-2.84%
소재	339.10	-0.83%	-0.30%	-10.07%
산업재	628.93	-0.67%	-0.57%	-5.81%
경기소비재	874.58	-0.69%	+1.46%	-5.84%
필수소비재	550.82	+0.48%	+0.31%	-1.48%
헬스케어	1,081.37	+0.48%	+1.33%	+0.14%
금융	447.95	+0.91%	-0.89%	-5.79%
IT	1,253.79	-0.47%	+2.72%	-3.58%
커뮤니케이션	155.81	+0.52%	+3.68%	-0.51%
유틸리티	272.47	-0.15%	-0.57%	+1.73%
부동산	194.82	-0.24%	-0.84%	-4.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증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62% MSCI 신흥 지수도 1.22%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100 계약) 여파로 0.95pt 하락한 280.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4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FOMC 의사록이 공개 되었다. 지난 9월 회의 때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회의 당시보다 비둘기파적인 내용 포함을 기대 했으나, 당시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감을 주며 발표 직후 지수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었다. 특히 중립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부담이었다. 비록 미 증시는 장중 상승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FOMC 의사록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 더 강한 모습이다.

한편, 국제유가가 3% 넘게 하락하며 70 달러를 하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부정적이다. 더불어 달러 강세 및 미 국채금리 상승 또한 부담이다.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분쟁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다만, 전일 시나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오늘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보도 했다. WSJ는 지난 16일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이슈 해소에 힘입어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환율 보고서 발표 이후 중국 증시의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지표 둔화

미국의 9월 주택착공건수는 지난달(126만 8천건)보다 감소한 120만 1천 건에 그쳤다. 이는 예상치(121만 6천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택소유자들이 주택가격 상승 여파로 새로운 집을 구하기 보다는 집을 개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허가건수도 전월(124만 9천건)은 물론 예상치(127만 2천건)에 미치지 못한 124만 1천 건에 그쳤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70 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분쟁 우려가 완화되자 하락 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의 카슈끄지 사건의 투명한 수사에 감사한다” 라고 언급하는 등 완화 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이 이어지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 이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국제유가는 70 달러를 하회했다. 한편, EIA 는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65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가솔린 재고가 2 백만 배럴 감소하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기도 했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달러화는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후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EU 정상회담에서 EU 관계자가 브렉시트 협상 타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4% 상승에 그치며 예상(yoy +2.6%)을 하회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U 예산 집행위원이 이탈리아의 예산안을 EU 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이탈리아 이슈가 재부각 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특히 FOMC 의사록 공개 직후 위원중 일부가 중립정책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이 상승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12 월 금리인상 확률은 의사록 공개 직후 상승(79.7%→83.0%)한 반면 2019 년 3 월 확률은 하락(50.2%→49.8%) 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도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또한 미 상무장관이 미-중 무역분쟁 협상이 정지되었다라고 언급한 점도 부담이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75%, 철근은 0.1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9.75	-3.02	-4.67	Dollar Index	95.620	+0.60	+0.12
브렌트유	80.05	-1.67	-3.66	EUR/USD	1.15	-0.64	-0.17
금	1,227.40	-0.29	+2.85	USD/JPY	112.6	+0.31	+0.29
은	14.663	-0.26	+2.35	GBP/USD	1.3117	-0.49	-0.60
알루미늄	2,022.00	-0.59	-1.22	USD/CHF	0.9953	+0.46	+0.53
전기동	6,219.00	+0.06	-0.32	AUD/USD	0.7107	-0.48	+0.74
아연	2,665.00	+2.26	+1.37	USD/CAD	1.3019	+0.66	-0.37
옥수수	374.25	-0.27	+3.17	USD/BRL	3.6845	-1.07	-0.80
밀	517.50	-1.15	+1.37	USD/CNH	6.9303	+0.25	+0.09
대두	885.75	+0.11	+3.93	USD/KRW	1126.50	-0.13	-0.66
커피	122.55	+4.16	+9.52	USD/KRW NDF1M	1127.41	+0.43	-1.35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201	+3.79	+3.83	스페인	1.647	+0.60	+3.70
한국	2.330	-4.50	-8.00	포르투갈	1.942	+0.70	-1.50
일본	0.148	0.00	-0.80	그리스	4.302	+4.60	-13.80
독일	0.461	-3.00	-9.10	이탈리아	3.545	+9.50	+4.20